

# 완도군 서부지역 자생해녀의 언어 연구\*

김경표(전남대)

## 〈목 차〉

- |                        |                      |
|------------------------|----------------------|
| 1. 서론                  | 4. 서부 자생해녀 언어의 어휘 연구 |
| 2. 서부 자생해녀 언어의 문법적 연구  | 5. 결론                |
| 3. 서부 자생해녀 언어의 음운론적 연구 |                      |

## 1. 서론

해녀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동해안 지역, 서남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서남해 지역 중에서 완도군에는 제주도에서 출향하여 완도에 정착한 출향해녀와 자생해녀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데 현재 자생해녀는 점점 사라져 가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전남 완도군의 서부지역 해녀 중 자생해녀의 언어를 대상으로 문법적, 음운론적, 어휘적 분석을 통해 자생해녀 언어의 특징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90926).

완도군은 265개의 섬들이 모여서 형성된 도서군으로, 완도군에는 3읍 9면이 있는데 섬들이 넓게 퍼져 있으므로 권역별로 나뉘서 조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본 연구의 서부지역은 완도읍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노화읍, 보길면, 소안면을 말한다. 조사 지역에 추자면을 추가하였는데 추자면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제주도에 속해 있지만 사용하는 어휘나 생활 무대가 완도군과 가까워 조사 지역에 포함하였다.<sup>1)</sup>

2014년 시·군 해양수산과에서 제공한 전남지역 해녀 현황자료를 보면 출항 해녀와 자생해녀에 대한 구분 없이 완도 서부지역 해녀 수를 제시하고 있는데 노화읍과 보길면에서 활동하는 해녀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소안면은 6명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전남 완도군 노화읍, 보길면, 소안면, 추자면에 있는 자생해녀를 대상으로 면담을 하고 채록한 내용을 토대로 문법적, 음운론적, 어휘적 분석을 통해 전남 방언 화자인 완도군 서부지역 자생해녀 언어의 특징을 밝히려고 한다.

전남 완도군 해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고광민(1992)의 평일도 해녀의 어로조직과 기술 연구, 곽유석(1991)의 청산도 해녀의 도구와 해초채취 연구, 이경아(1997)의 신지도 패류 채취와 기술 연구, 양원홍(1998)의 완도에 정착한 제주해녀의 생애사가 있다. 완도군이 포함된 연구는 송기태(2015)의 신안과 완도의 무례꾼(해녀)의 정체성과 어로활동에 대한 연구, 박종오(2015)의 서남해 지역 해녀의 어로 기술 습득 방법과 어로 환경 적응 양상 연구, 전남여성플라자(2013)의 여수·신안·완도·고흥 지역 해녀의 실태연구, 국립무형유산원(2015)의 서남해 해녀, 통소음악, 한지장 연구가 있다. 선행 연구들은 민속학적 관점에서 해녀 생애사와 해녀의 해산물 채취 방법과 기술, 마을 어업과의 관계 등을 논의하는 연구로, 해녀가 사용하는 특정 어휘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전남 방언 화자인 해녀들의 언어적 특징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서부지역 자생해

1) 추자도는 완도항과 제주항에서 매일 여객선이 운행되고 있어서 추자도 사람들은 두 곳 모두 왕래가 잦는데 추자도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은 전남 방언에 더 가까웠다. 그런데 아이들은 교육을 위해서 제주도로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녀 언어의 문법, 음운, 어휘적 특징을 분석하여 서부지역 해녀 언어의 특징을 밝힘으로써 완도군 해녀 언어의 특징을 밝히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sup>2)</sup>

완도군 서부지역의 자생해녀를 파악하기 위해 해녀와 관련된 자료집, 동영상 등을 수집하였다.<sup>3)</sup>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2021년 8월에 노화읍과 보길면을 현장 조사를 했는데 노화읍에서 활동하는 해녀는 찾지 못했다. 보길면 현장 조사는 2021년 8월 3일에 실시하였고 소안면은 2021년 8월 19일에 실시하였다. 그리고 추자면은 2021년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였다. 현장 조사에서 해녀 문화를 잘 알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제보자를 선정하고 미리 준비한 해녀 생애와 물질 작업에 대해 질문하면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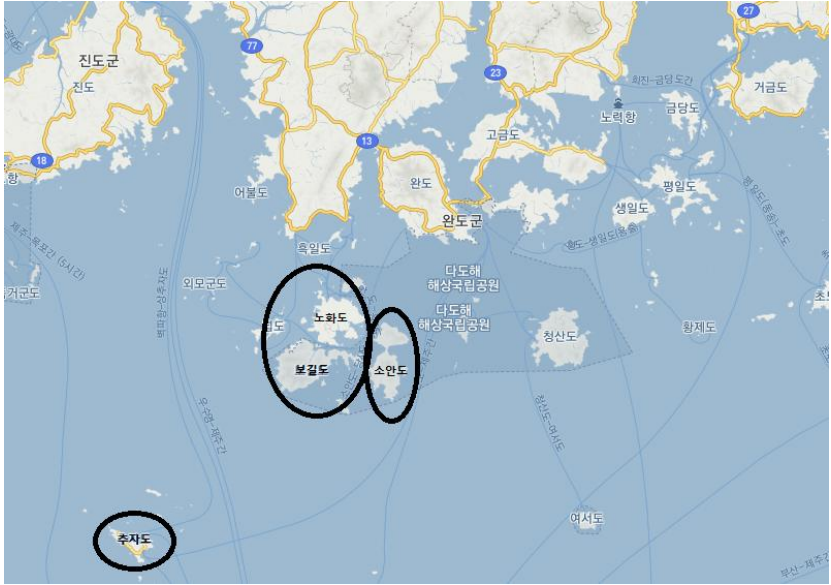
면담을 통해 채록한 내용을 문법, 음운, 어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문법적 분석은 이기갑(2003)을, 음운론적 분석은 김경표(2013)을, 어휘적 분석은 양희주(2015)를 참고하였다.<sup>5)</sup> 문법적 분석은 조사, 연결어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음운론

- 2) 한 언어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려면 그 언어의 문법, 음운, 어휘적 특징을 파악하면 되는데 개인의 언어도 마찬가지이다. 서부지역 자생해녀의 언어를 파악하기 위해 해녀 언어의 문법, 음운, 어휘적 특징을 분석하는데 전남 방언과의 영향 관계는 문법, 음운론적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제주해녀 어휘와의 차이점은 어휘적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3) 완도군 자생해녀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무형유산원(2015)에서 조사한 서남해 해녀의 자료를 참고하였고 소안면 해녀의 경우에는 먼저 해녀 관련된 동영상 자료를 확인하고 현지에 가서 수소문한 후에 찾을 수 있었다.
- 4) 코로나 19로 외부인을 만나 대화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기꺼이 조사에 참여해 주신 제보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제보자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성함	성별	나이	조사 지역	조사 방식
황○○	여	76	보길면 중리	구술조사
신○○	여	78	소안면 미라리	구술조사
박○○	여	80	추자면 예초리	구술조사
오○○	여	80	추자면 예초리	구술조사
김○○	여	82	추자면 예초리	구술조사

- 5) 이기갑(2003)의 《국어방언문법》은 방언학자들이 이루어낸 성과를 바탕으로 저자의 연구를 보태어 국어 방언 문법 전체를 개괄하는 체계를 세운 것으로 전남방언의 문법 체계를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다양한 예들이 많아 본 연구에 참

적 분석은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활음화를 중심으로 살피며 어휘적 분석은 해녀 명칭, 바다 환경, 작업 도구를 중심으로 살핀다.



〈완도군 지도〉<sup>6)</sup>

고하였다. 그리고 김경표(2013)의 《전남 도서 방언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는 완도군 청산면, 고금면, 금일읍을 조사한 연구로 본 연구의 조사 지역과 겹치는 지역이 없으나 완도 방언의 음운 현상을 참고할 수 있어서 본 연구에 참고하였다. 양희주(2015)의 《제주해녀 어휘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된 제주해녀 어휘를 모아 유형별로 분류하여 완도 서부지역 해녀와 비교하기에 용이하여 본 연구에 참고하였다.

6) 이 지도는 카카오맵에서 가져와서 편집한 것이다.

## 2. 서부 자생해녀 언어의 문법적 연구

완도군 서부지역 자생해녀 언어를 문법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조사, 연결어미로 나누고 하위 층위에서 방언형과 표준어 형태가 공존하는 경우, 방언형만 나타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 2.1. 조사<sup>7)</sup>

#### 2.1.1. 방언형과 표준어 형태가 공존하는 경우

##### 1) 처격조사 '에서'

처격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범위뿐만 아니라, 어떤 행위가 그쪽으로 향해가는 지향점을 가리키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처격 조사 '에서'는 모든 방언에서 두루 쓰이며 전남 방언에서는 '이서'로도 나타난다.

- (1) ㄱ. 해수욕장에서 이릉고 하다 봉께로 /  
우리집서 신랑집으로 까메 타고 왔지라.[보길도]  
ㄴ. 옛날에 다 시골에서 농사 짓고 / 집이서는 잔치하고[소안도]  
ㄷ. 이 동네에서 결혼해서 살어요. / 집이서 밥을 쪄.[추자도]

처격 조사 '에서'는 보길도, 소안도, 추자도에서 모두 나타나는데 장소 명사 '집' 뒤에서만 방언형인 '이서'나 '서'로 나타나므로 세 지역 채록 자료에서 그 예를 확인해 보았다. 보길도 해녀의 경우 장소 명사 뒤에서 모두 '에서'가 사용되었는데 장소 명사 '집' 뒤에서는 100% '서'로 나타났다.<sup>8)</sup> 소안도 해녀의 경우에는 처격 조사 '에서'가 50회 나타나는데 장소 명사 '집' 뒤에서 '에서'는 56%, '서'는

7) 조사 중에서 주격 조사 '이/가', 목적격 조사 '을/를', 여격 조사 '한테', 공동격 조사 '하고', 접속 조사 '이랑'은 표준어와 차이가 없어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8) 표준어 구어에서 '에서'의 '에'가 생략된 '서'가 홀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보길도 해녀도 '이서'의 '이'가 생략된 '서'가 단독으로 쓰이고 있다.

33%, '이서'는 11% 비율로 나타났다. 추자도 해녀의 경우에는 처격 조사 '에서'가 42회 나타났으며 장소 명사 '집' 뒤에서 '에서'는 70%, '이서'는 30% 비율로 실현되었다. 소안도에서는 처격 조사가 '에서>서>이서' 순으로 실현되고, 추자도에서는 '에서>이서'로 실현되고 있어서 소안도와 추자도에서는 표준어 형태인 처격 조사 '에서'의 실현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보길도의 경우에는 장소 명사 뒤에서는 표준어 형태인 '에서'가 실현되는데 장소 명사 '집' 뒤에서는 모두 '서'로 실현되고 있어서 두 지역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 2) 도구격 조사 '으로'

도구격 조사 '으로'는 수단이나 재료를 나타내며 모든 방언에서 쓰인다. 전남 방언에서는 '이로'로도 실현된다.<sup>9)</sup>

- (2) ㄱ. 손으로 뜯지요. / 옛날에는 손으로 하다가 [보길도]  
 ㄴ. 송건으로 해갓고 밀이라고 있어.<sup>10)</sup>[소안도]  
 ㄷ. 박으로 해갓고 들박을 만들었어. / 돈으로 줬어요.[추자도]

보길도, 소안도, 추자도에서 모두 도구격 조사 '으로'가 나타났으며 보길도와 추자도에서는 방언형인 '이로' 용례가 나타났다.<sup>11)</sup> 보길도 해녀의 경우 도구격 조사 '으로'는 57%, '이로'는 43%로 실현되었다. 소안도 해녀는 모두 '으로'로 실현되었고 35회 나타났다. 추자도 해녀는 도구격 조사 '으로'는 89%, '이로'는 11%로 나타났다. 보길도는 도구격 조사가 '으로>이로'로 실현되고 추자도는 '으로>이로'로 실현되고 있다. 소안도는 100% '으로'로 실현되고 있어서 세

9) 신안군 가거도 해녀의 경우에도 도구격 조사 '이로'를 사용하였다.

10) 해녀들이 물질할 때 귀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 껌을 사용하는데 소안도 해녀들은 주로 송진을 사용하며 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썩을 섞어서 사용한다고 한다.

11) 처격 조사 '으로'는 세 지역에서 모두 '으로'로 실현되고 '이로'로는 실현되지 않았다. 그런데 도구격 조사 '으로'는 '이로'로 실현되고 있어서 해녀들이 두 조사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에서 도구적 조사의 실현 양상이 표준어 형태인 ‘으로’로 굳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보길도의 경우에 방언형인 ‘이로’도 43%로 실현되고 있어서 다른 지역과 달리 표준어 형태와 방언형이 공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3) 보조사 ‘마다’

‘마다’는 체언과 결합하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날날이 모두’ 또는 ‘앞말이 가리키는 시기에 한 번씩’이라고 제시하였다. 전남 방언에서는 ‘마다, 마닥, 마당, 마도, 마독, 마동, 마지’로 나타난다.<sup>12)</sup>

- (3) ㄱ. 사람마다 다 달부제.[전남]<sup>13)</sup>  
 ㄴ. 우리가 갈 때마다 돈으로 했어요.[소안도]  
 ㄷ. 물때마다 인자 다음 물때는 또 그렇게 하고  
 / 사람마당 다 다리.[추자도]

소안도와 추자도에서 보조사 ‘마다’가 나타나는데 ‘앞말이 가리키는 시기에 한 번씩’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보길도 채록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추자도 해녀의 경우에 방언형인 ‘마당’을 사용하였는데 ‘날날이 모두’를 뜻한다. 추자도 채록 자료에서 ‘마다’는 33%, ‘마당’ 67%로 나타났다. 소안도 해녀는 표준어 형태인 ‘마다’만을 사용하였으나 추자도 해녀는 ‘마당’마다’로 실현되고 있어 방언형이 더 우세한 것을 알 수 있다.

### 4) 보조사 ‘부터’

보조사 ‘부터’는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된 범위의 시작임을 나타내는데 전남 방언에서는 받침에 ‘ㅁ’이 첨가된 ‘부터ㅁ’이 나타난다.

- (4) ㄱ. 조상 때부터 물려 받은 거죠.[소안도]  
 ㄴ. 그때부터 인자 일하고 / 고등학교부터는 제주로 가든가[추자도]

12) 이러한 변이형은 받침에 ‘ㄱ’이나 ‘ㅇ’이 첨가되어 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13) [전남]으로 표시된 예문은 이기갑(2003) 《국어방언문법》에서 가져온 것이다.

소안도와 추자도에서 조사사 '부터'가 나타나는데 보길도 채록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추자도 해녀는 방언형인 '부딴'을 사용하였는데 '부터'는 68%, '부딴'은 32% 비율로 나타났다. 소안도 해녀는 표준어 형태인 '부터'만을 사용하였지만 추자도 해녀는 '부터>부딴'으로 실현되고 있어 표준어 형태가 더 우세한 것을 알 수 있다.

### 2.1.2. 방언형만 나타나는 경우

#### 1) 관형격 조사 '의'

관형격 조사는 체언과 체언을 연결한다. 표준어에서는 '의'로 실현되지만 전남 방언에서는 '에, 으, 우'로 나타난다.

- (5) ㄱ. 벼룩에 간 / 남우 집[전남]  
 ㄴ. 동민에 날도 하고 그러는디 / 쫓아서 놈우 바닥에 가문은 [소안도]  
 ㄷ. 놈우 빛 갓을라고[추자도]

(5ㄱ)처럼 전남 방언에서 관형격 조사는 보통 '에, 우'로 실현되는데 소안도에서는 '에, 우'로 실현되고 있다. 추자도에서는 '우'로 실현된 예만 나타났다. 전남 방언에서 관형격 조사 '우'는 남을 의미하는 '놈'과 결합할 때 실현되는데 두 지역 해녀들은 '놈' 뒤에서 '우'가 나타났다. 보길도 해녀는 채록한 자료에는 없었지만 관형격 조사 '에, 우'가 존재할 것이다.

#### 2) 처격 조사 '에가'

처격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범위뿐만 아니라, 어떤 행위가 그쪽으로 향해 가는 지향점을 가리키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조사 '에가'는 표준어의 '에' 또는 '에서'에 해당하는 조사로 전남 방언에서 나타난다.

- (6) ㄱ. 어디에가 있나?/ 광주가 있다.[전남]  
 ㄴ. 농협에가 생에 있었어요. / 우리 도련님은 서울가 사시고[소안도]



ㄷ. 그 부근에가 인자 소라가 있어.[추자도]

(6ㄱ)처럼 전남 방언에서 처격 조사 ‘에가’나 ‘가’가 나타나는데 소안도와 추자도에서는 처격 조사 ‘에가’가 나타났다. 소안도 해녀의 경우 처격 조사 ‘에가’에서 ‘에’가 생략된 ‘가’도 나타났다. 보길도 해녀 채록 자료에서는 처격 조사 ‘에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 3) 비교격 조사 ‘처럼’, ‘만큼’

정도나 우열의 비교에 쓰이나 그 다름이 아니라 같음을 나타내는 비교격 조사로 ‘처럼’과 ‘만큼’이 있다. 이기갑(2003:91-98)에서 전남 방언의 ‘처럼’은 ‘처럼’과 기원을 같이하는 것과 ‘만’ 계열이 있다고 한다.<sup>14)</sup> 본 연구의 채록 자료에서는 ‘처럼’과 기원을 같이하는 방언형이 나타나는데 ‘치로, 칠로, 철로’ 등이 있다.<sup>15)</sup> ‘만큼’은 ‘만큼, 만치, 만침’으로 나타난다.

- (7) ㄱ. 진도 사람들치로 밋은 없었어라. / 사람 산 것마니 살등만 /  
 여그만치 좋은 디도 없어.[전남]  
 ㄴ. 옥에다가 인자 저구리치로 물웃이라고 그랬어.[추자도]  
 ㄷ. 물갱이 그만치 옛날하곤 틀려요.[소안도]

(7ㄱ)의 전남 방언에서 ‘처럼’과 기원을 같이하는 ‘치로’와 ‘만’ 계열 ‘마니’가 나타나지만 채록 자료에서는 ‘처럼’과 기원을 같이하는 예만 나타난다. 추자도 해녀는 방언형인 ‘치로’를 사용하였다. (7ㄱ)의 전남 방언에서 ‘만큼’은 ‘만치’로 나타나지만 채록 자료에서는 방언형만 나타난다. 소안도 해녀는 ‘만치’가 나타났다. 채록 자료를 토대로 추측해 보면 비교격 조사 ‘처럼’, ‘만큼’은 방언형이 우세한 것을 알 수 있다.

14) ‘만’ 계열은 대표적으로 ‘마니, 멩기, 멩키, 마냥, 만치로’ 등이 있다.

15) ‘처럼’은 ‘테로>터로>쳐로>처롬>처럼’의 변화를 거친 것 같다. 방언형 ‘철로’는 ‘테로>터로>쳐로>쳐로>칠로’의 변화에서 나온 것이고 ‘치로, 칠로’는 ‘테로>터로>쳐로>쳐로>치로>칠로’의 변화에서 나온 것이다.

## 2.2. 연결어미

## 2.2.1. 방언형과 표준어 형태가 공존하는 경우

1) ‘-으니까’<sup>16)</sup>

‘이유’를 나타내기도 하며 때에 따라 ‘상황’을 뜻하기도 한다. 전남 방언에서는 보통 ‘-응께’로 실현되며 ‘-으니까(로), 응께(로)’로도 나타난다.

- (8) ㄱ. 진작부터 말허니까 안 듣고 / 내가 강께로 다들 모였등만.[전남]  
 ㄴ. 사람 죽었응께 갖다 물어불문 돼라. / 지금 안 항께 모르겠소.  
 [보길도]  
 ㄷ. 돈 없응께 못 찾아 목제. / 지금은 다 합쳐서 지내니까[소안도]  
 ㄹ. 못 자석이니까 제사도 있죠. / 수영을 자연적으로 했응께[추자도]

연결어미 ‘-으니까’는 소안도와 추자도에서는 방언형과 표준어 형태가 모두 나타나고 보길도는 방언형만 나타났다. 보길도 해녀는 방언형인 ‘-응께’만 사용하였고 소안도 해녀는 표준어 형태인 ‘-으니까’는 28%, 방언형인 ‘-응께’는 72% 비율로 나타났다. 추자도 해녀는 ‘-으니까’는 62%, ‘-응께’는 38% 비율로 나타났다. 보길도 해녀는 ‘-응께’만 사용하고 소안도 해녀는 ‘-응께’-으니까’로 실현되고 있어서 두 지역은 방언형이 더 우세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추자도 해녀는 ‘-으니까’-응께’로 실현되고 있어서 표준어 형태가 더 우세한 것을 알 수 있다. 연결어미 ‘-으니까’는 보통 전남방언에서 ‘-응께’로 실현되는 비율은 높는데 추자도 해녀의 경우에는 아마도 추자도가 두 지역에 비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방송 매체의 영향을 받아서 표준어 형태인 ‘-으니까’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

16) 이기갑(2003:387)에서 ‘으니까’의 ‘까’는 방언에 따라 ‘께’, ‘꺼’, ‘끼’로 실현되는데 ‘께’는 서북 방언, 충청 지역어, 서남 방언, 동남 방언에서 확인되고 ‘꺼’는 서북 방언, 강원도 지역어, 육진 방언에서 나타나며 ‘끼’는 서북 방언에서 보인다고 한다.

## 2) '-으면'

조건이나 가정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방언에 따른 의미 차이는 없는데 전남 방언에서는 '-으면'으로 실현된다.<sup>17)</sup>

(9) ㄱ. 니가 가면 쓰것다.[전남]

ㄴ. 노물은 한 서너가지껏 하문 돼요.[보길도]

ㄷ. 빗 갇아야지 안 갇으면 되겠소.[소안도]

ㄹ. 시집 가문은 양동우라고 해서 /

한 번 들어가면 5시간, 6시간도 작업을 하고[추자도]

연결어미 '-으면'은 보길도, 소안도, 추자도에서 '하문, 갇으면, 가문'처럼 '-으문'으로 나타나고 있어서<sup>18)</sup> (9ㄱ)의 전남 방언에서 나타나는 '-으면'과 차이가 있다. 보길도와 소안도는 방언형인 '-으문'만 나타났고 추자도는 표준어 형태인 '-으면'도 나타나는데 그 비율은 10% 정도이고 90%는 '-으문'으로 실현되었다. 보길도와 소안도는 '-으문'만 사용하고 추자도는 '-으문>-으면'으로 방언형인 '-으문'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전남 방언 '-으면'과 차이가 있는데 채록 자료를 토대로 추측해 보면 연결어미 '-으면'은 '-으문'에서 '-으문'으로 바뀌었으며 '-으문'이 더 보편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2.2. 방언형만 나타나는 경우

## 1) '-으면서'

'-으면서'는 둘 이상의 사실을 겹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둘 이상의 사실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모든 방언에서 공통으

17) 《한국방언자료집 전라남도편》의 완도군 자료를 보면 '잡으면, 물면, 알면, 껌으면, 없으면, 더러면, 모르면, 흐르면, 드물면, 부드러면'처럼 모두 '-으면'으로 실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8) 연결어미 '-으문'은 중부 방언과 동북 방언에서 나타나며 김경표(2021)의 신안군 해녀의 경우에도 '-으문'이 나타난다.

로 나타나며 전남 방언에서는 ‘-음서, -음선, -음성, -음스로, -음스러, -음시로, -음시롱’으로 나타난다.<sup>19)</sup>

(10) ㄱ. 갈침서 배우제.[전남]

ㄴ. 모도 하는 거 보고 따러 땡기문서 하기도 하고[추자도]

연결어미 ‘-으면서’는 전남 방언에서 다양한 변이 형태로 나타나는데 (10ㄱ)에서 ‘갈침서’처럼 ‘-음서’로 실현된다.<sup>20)</sup> (10ㄴ)에서 추자도 해녀는 ‘땡기문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남 방언과 달리 ‘-문서’로 실현되었다. 이는 연결어미 ‘-으면’이 전남 방언에서 보통 ‘-으문’으로 실현되는 것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 보길도와 소안도 채록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 2) ‘-으려고’

어떤 행위의 의도를 나타내거나 곧 일어날 움직임이나 나타내는 어미이다. 전남 방언에서는 ‘-을라고’로 실현된다.

(11) ㄱ. 몇 혈라고 인자 오냐?[전남]

ㄴ. 따러 목을라고 따로 오고 그래요 /  
반찬할라고 어디든지 갔어.[소안도]

ㄷ. 놈우 빗 갓을라고 /

힘들고 못 이기고 그라니까 안 할라고 해.[추자도]

전남 방언에서 연결어미 ‘-으려고’는 (11ㄱ)처럼 ‘-을라고’로 실현된다. 소안도와 추자도에서도 ‘목을라고, 반찬할라고, 갓을라고, 할라고’처럼 나타나고 있는데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을라고’,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르라고’로 실현된다. 채록 자료를 통해 두 지역 해녀들의 연결어미 ‘-으려고’ 사용 양상은

19) 가거도 해녀는 ‘-음스로’, 비리 해녀는 ‘-문서’를 사용하였다.

20) 이는 ‘-으면서>-으면서>-음서’의 변화에서 온 것이며 이 때의 ‘서’는 탈락되지 않는다고 한다(이기갑 2003:356).

전남 방언과 차이가 없었다. 보길도 채록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 3) '-지'

연결어미 '-지'는 이어지는 두 절의 내용이 대립하는 경우에 쓰이며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서술하거나 물음, 명령, 요청을 나타내며 문장을 끝맺는 어미로도 쓰인다. 전남 방언에서는 '-제'로 실현된다.<sup>21)</sup>

- (12) ㄱ. 즈그가 했제 내가 했가니? / 일은 다 했제?[전남]  
 ㄴ. 옛날에 입었던 옷이 아는 것이제 알겠소. / 엄마랑 같이 왔제.  
 [보길도]  
 ㄷ. 농사 짓고 그런 거 했겠제 뭇 했겠어. / 그것이 생계가 됐제.  
 [소안도]  
 ㄹ. 미역국만 짬여 먹었제. / 평상 때는 보리만 먹었제.[추자도]

전남 방언에서 연결어미 '-지'는 '-제'로 나타나는데 (12ㄱ)처럼 연결어미로 쓰이기도 하고 '일은 다 했제?'처럼 종결어미로도 쓰인다. 연결어미 '-제'는 보길도에서는 5%, 소안도에서는 17%, 추자도에서는 6%로 실현되었다. 그리고 '같이 왔제, 생계가 됐제, 보리만 먹었제'처럼 종결어미로도 사용되는데 보길도는 95%, 소안도는 83%, 추자도는 94%로 실현되었다. 세 지역 채록 자료에서 '-제'는 보통 종결어미로 실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서부 자생해녀 언어의 음운론적 연구

완도군 서부지역 해녀 언어의 음운론적 특징을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활음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완도 방언과 비교하고자 한다.<sup>22)</sup>

21) 중부 방언에서는 '-지'와 '-제'로 나타나고 동남 방언에서는 '-제'로 나타나며 제주 방언에서는 '-주'로 나타난다.

22) 채록 자료에 해녀 언어의 음운론적 특징을 밝힐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아 모음

## 3.1.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모음의 완전순행동화는 ‘이, 에’ 말음 어간이나 ‘ㅎ, ㅎ’ 말음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후행하는 어미의 모음이 어간말음절의 모음과 같아지는 것이다. 채록 자료에서 2음절 어간을 살펴보자.<sup>23)</sup>

- (13) ㄱ. 남자 집서 여자를 데려 간다고 / 밥 한상 차려 놔요.[보길도]  
 ㄴ. 망사리에다 갖고 땡겨요. / 조락에다 해갖고 땡게놓고<sup>24)</sup> /  
 술 한 잔 따라놓고 내려오더만이라.[소안도]  
 ㄷ. 그런 거 갖고 땡겨 / 돌박에 형서리다 차고 땡게요.<sup>25)</sup> /  
 돌박이 떠내려 가버리니까[추자도]  
 ㄹ. 땡겨서, 모지레서[완도]<sup>26)</sup>  
 ㅁ. 땡게서, 내레라, 드쌌다, 비베서, 다체서, 지달러라[완도읍]<sup>27)</sup>

(13)에서 보길도 해녀의 경우 ‘/차리-+어/→/차려/→/차려’(차리-, 備)’에서 보듯이 활음화 이후에 ‘이+어→여’형이 나타나는데 100%로 실현되었다. 그런데 소안도와 추자도 해녀의 경우에는 ‘/땡기-+어/→/땡겨/→/땡겨’/[땡게](땡기-, 行)’에서 보듯이 활음화 이후에 실현되는 ‘이+어→여’형과 ‘여→에’ 축약 이후에 실현되는 ‘이+어→에’형이 공존하고 있다. 소안도는 ‘이+어→여’형은 53%, ‘이+

의 완전순행동화, 활음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 23) 채록 자료에서 1음절 어간의 예는 나타나지 않아서 2음절 어간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24) 조락은 허리에 차는 작은 주머니로, 물속에서 채취물을 가지고 나올 때 사용한다.  
 25) 돌박은 해녀들이 작업할 때 바다에 가지고 가서 타는 물건으로 ‘테왁’이라고 하며 흑산도에서는 ‘두름박’이라고 한다. 형서리는 해녀가 채취한 해물을 담아 두는 그물로, 제주도는 ‘망사리’라고 하고 흑산도에서는 ‘멍서리, 흥수레’라고도 한다.  
 26) 이 자료는 김경표(2013)에서 완도군 자료만 추출한 것으로, 조사 지역은 완도군 고금면, 청산면, 금일읍이며 이후 자료도 동일하다.  
 27) 이 자료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에서 완도군 완도읍을 조사한 자료만 추출한 것이다. 전남 방언에서는 ‘ㅈ’와 ‘ㅊ’의 구별이 없어져서 음성기호 ‘E’로 표기한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ㄱ’로 표기한다.

어→에'형은 47%로 비슷하게 실현되었다. 추자도는 '이+어→여'형은 70%, '이+어→에'형은 30%로 실현되어 '이+어→여'형 실현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13 ㄷ)은 김경표(2013)의 자료로, 조사 지점이 다른 완도 방언으로 자료가 많지 않지만 '이+어→여'형과 '이+어→에'형이 공존하고 있다. (13 ㄹ)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의 자료로, '이+어→에'형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13 ㄷ, ㄹ) 자료를 통해 완도 방언은 '이+어→여'형도 있지만 '이+어→에'형이 더 일반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서부 자생해녀의 경우에 보길도 해녀는 '이+어→여'형만 나타났고 소안도와 추자도 해녀는 두 형태가 공존하고 있다. 완도 방언 자료와 비교해 보면 서부 자생해녀는 '이+어→여'형이 더 보편화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 3.2. 활음화

활음화는 어간 말음이 모음인 경우,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모음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일어나는 음운현상으로 w-활음화와 y-활음화가 있다.

### 3.2.1. w-활음화

w-활음화는 어간말음절의 모음 '오, 우'가 어미초 '아'나 '어'와 결합할 때 활음 'w'가 되는 음운현상이다. 먼저 어간말음절의 모음이 '오'인 경우를 살펴보자.

- (14) ㄱ. 여가 와서 컸어요 / 잔치는 했다고 바:야지요.[보길도]  
 ㄴ. 숨 가쁘게 나와서 / 청년들이 여름 해수욕장 바:갖고[소안도]  
 ㄷ. 인자 나와서 불 켜고 또 들어가고 / 사고 날까 바:서[추자도]  
 ㄹ. 와서, 바:서[완도]  
 ㅁ. 와서, 왔다, 바:서, 봤:다[완도음]

(14)에서 세 지역 해녀 모두 w-활음화가 일어났는데 보길도는 67%, 소안도는

97%, 추자도는 73%로 실현되었다. 그리고 세 지역 모두 ‘보-(看)’ 용언은 활음화 이후 활음 ‘w’가 탈락하였는데 보길도는 33%, 소안도는 3%, 추자도는 27%로 실현되었다. (14 ㄹ, ㅁ)의 완도 방언에서 w-활음화가 일어났고 ‘보-(看)’ 용언에서는 활음화 이후에 활음 ‘w’가 탈락하였다. 서부 자생해녀는 완도 방언처럼 활음화가 일어난 경우와 활음화 후에 활음 ‘w’ 탈락이 일어난 경우가 공존하고 있는데 w-활음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더 우세했다.

- (15) ㄱ. 돈 얼마씩 나눠주고 그랬어요.[소안도]  
 ㄴ. 갯갯에 가서 이렇게 모욕하고 그렇게 배워요. /  
 전에는 반으로 나누어서 했거든/ 인자 해가 바뀌지면은[추자도]  
 ㄷ. 키워서, 키와서, 가뒤서, 가더서[완도]  
 ㄹ. 바뀌, 싸왔다, 배위라, 가짜라, 가다라[완도읍]

(15)는 어간말음절의 모음이 ‘우’인 어간으로, 활음화가 일어났는데 소안도는 100%, 추자도는 60%로 실현되었다. 추자도 해녀의 경우에 ‘나나서’처럼 어간말음절에 초성이 있으면 활음화가 일어나고 그 후에 활음 ‘w’가 탈락한 경우도 나타나는데 40% 비율로 실현되었다. (15 ㄷ, ㄹ)에서 완도 방언은 활음화가 일어난 형태가 더 일반적이고 활음화 후에 활음 ‘w’가 탈락한 형태도 나타난다. 서부 자생해녀의 경우에 두 형태가 공존하겠지만 활음화만 일어나는 형태가 더 일반화될 것 같다.<sup>28)</sup>

### 3.2.2. y-활음화

y-활음화는 어간말음절의 모음 ‘이’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활음 ‘y’가 되는 음운현상이다.

- (16) ㄱ. 장갑 썬요. / 밥 한상 차려 놔요.[보길도]

28) 신안군 해녀의 경우에는 활음화 후에 활음 ‘w’가 탈락한 형태가 일반적이어서 차이가 난다.



- ㄴ. 고무장갑 짜야 되고 / 개 못 땡겨라. /  
조락에다 해갓고 땡게놓고[소안도]
- ㄷ. 미연 장갑 그거 짜요. / 호맹이도 안 갖고 땡겨 /  
둘박에다 차고 땡게[추자도]
- ㄹ. 짜서, 땡겨서, 데려서, 비벼서, 비베서, 이게서[완도]
- ㅁ. 짜서, 땡게서, 내레라, 드쌌다, 비베서, 지달려라[완도읍]

(16)에서 보길도, 소안도, 추자도 해녀 모두 y-활음화가 일어났다. (16 ㄱ, ㄴ, ㄷ)에서 ‘짜요, 짜야는 ‘끼-(插)’ 어간에 ㄱ-구개음화가 일어난 ‘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여 y-활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보길도 해녀는 활음화 이후에 ‘이+어→여’형이 100%로 나타났지만 소안도와 추자도 해녀는 활음화 이후에 ‘이+어→여’형뿐만 아니라 ‘이+어→에’형도 나타났다. 소안도는 ‘이+어→여’형은 53%, ‘이+어→에’형은 47%로 실현되었고 추자도는 ‘이+어→여’형은 70%, ‘이+어→에’형은 30%로 실현되었다. (16ㄹ)을 보면 ‘이+어→여’형과 ‘이+어→에’형이 공존하고 있지만 ‘이+어→여’형이 더 일반적인 것 같다. (16ㅁ)을 보면 두 형태가 공존하고 있지만 ‘이+어→에’형이 더 일반적인 것 같다. (16ㄹ)은 2013년 자료이고 (16ㅁ)은 1991년 자료로, 완도 방언의 y-활음화는 활음화 이후에 ‘이+어→여’형이 더 일반화될 것 같다. 보길도 해녀는 완도 방언과 같은 모습을 보이나 소안도와 추자도 해녀는 두 형태가 공존하고 있지만 완도 방언처럼 활음화 이후에 ‘이+어→여’형이 더 일반화될 것 같다.<sup>29)</sup>

#### 4. 서부 자생해녀 언어의 어휘 연구

완도군 서부지역 자생해녀 언어의 어휘적 특징을 해녀 명칭, 바다 환경, 작업 도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제주도 해녀 어휘와 비교한다.

29) 신안군 해녀의 경우에도 y-활음화는 ‘이+어→여’형이 더 일반적이었다.

## 4.1. 해녀 명칭

해녀 명칭은 해녀의 능력과 기량에 따라 분류하는데 서부 자생해녀 명칭은 다음과 같다.

- (17) 가. 해녀 이름, 아무개 / 상군, 똥군[보길도]  
 나. 해녀 / 영자[소안도]  
 다. 해녀, 아무개 엄마 / 머구리, 반가[추자도]  
 르. 해녀, 줌녀 / 상군, 중군, 하군[제주도]<sup>30)</sup>

(17)에서 서부지역 해녀들은 제주도 해녀와 달리 해녀를 부를 때 ‘해녀’라고만 불렀다. 그런데 보길도 해녀는 해녀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추자도 해녀는 아이의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17르)에서 제주도 해녀는 물질의 능력과 기량에 따라 그 명칭을 상군, 중군, 하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서부 자생해녀들은 명칭 구분이 덜 세분화되었다.<sup>31)</sup> 보길도 해녀는 제주도 해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상군, 똥군’을 사용하였는데 ‘똥군’은 물질을 갖 배운 서툰 해녀를 이르는 말이다.<sup>32)</sup> 소안도 해녀는 상군을 ‘영자’라고 했는데 그 뜻을 알기는 어렵다. 추자도 해녀는 상군을 ‘머구리’라고 했는데 헬멧을 쓰고 산소 호스와 연결되어 오랫동안 작업하는 잠수부를 생각하며 상군으로 여기는 것 같다. 반면에 하군을 ‘반가’라고 했는데<sup>33)</sup> 그 어원을 알기 어렵다.

30) 양희주(2015)에서 가져온 자료이다.

31) 신안군 해녀는 상군에 대장해녀, 상무레꾼, 중군에 보통해녀, 하군에 하빠리라고 하였다.

32) 제주어 사전(2009)에는 하군으로 ‘각즘네, 돌파리, 불락즘네, 족은즘네, 핫바리’ 등이 있다.

33) ‘반가’를 본래의 값의 절반을 이르는 ‘반가(半價)’로 보면 이에 유추하여 물질 능력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 해녀를 ‘반가’라고 부르는 것 같다.

## 4.2. 바다 환경

해녀들이 작업하는 바다는 재료와 공간으로 분류할 수 있다.

- (18) ㄱ. 모래바다[보길도]  
 ㄴ. 모살바다, 자갈바다(머들) / 고래여, 웅통개[소안도]  
 ㄷ. 뽕섬, 넉지[추자도]  
 ㄹ. 모살바당, 작지바당, 펄바당 / 엉덕, 여[제주도]

해녀들의 작업장인 바다는 그 환경이 다른데 ‘바위, 모래, 자갈, 펄 등의 재료에 따라 바다를 다르게 부르고 있다. 보길도 해녀는 물질하는 곳에 모래가 많아 ‘모래바다’라고 하였다. 소안도 해녀는 물질 장소에 모래는 별로 없고 자갈이 많아 ‘자갈바다’라고 하는데 자갈을 ‘짜지’라고도 하며 자갈이나 돌이 쌓인 곳을 ‘머들’이라고 하였다. 추자도는 작업하는 바다에 모래나 펄이 없고 바위가 많이 있어서 그곳을 ‘뽕섬’이라고 불렀고 바다의 바닥에 깔려 있는 돌을 ‘넉지’라고 하였다. 서부 자생해녀들이 작업하는 바다 명칭은 제주 해녀들과 다르지 않으며 ‘머들’이나 ‘넉지’는 제주 해녀의 영향을 받아 사용하는 어휘임을 알 수 있다. 공간과 관련된 어휘는 소안도 해녀 자료에서 나타났는데 목섬에 가면 ‘고래여’가 있고 그 너머에 가면 ‘웅통개’가 있다고 한다.

## 4.3. 작업 도구

해녀들이 물질을 할 때 사용하는 작업 도구는 채집용 도구, 채취용 도구, 보조 도구로 분류할 수 있다.

- (19) ㄱ. 망아리 / 호무, 피창 / 두름박[보길도]  
 ㄴ. 망사리, 조락 / 깔꾸, 피창 / 두름박, 땃배[소안도]  
 ㄷ. 멍서리, 형서리 / 까꾸리, 빈창 / 둘박[추자도]  
 ㄹ. 망사리, 흥사리 / 갈퀴, 빗창 / 테왁, 닛줄[제주도]

해녀들이 바다에서 채취한 해산물을 담아 넣는 그물을 제주도 해녀는 ‘망사리’라고 하는데 ‘망’은 한자어 ‘그물 망(網)’이고 ‘사리’는 실 따위를 동그랗게 포개어 감은 멍치를 뜻하는 것 같다. 서부 자생해녀는 ‘망아리, 망사리, 멍서리’라고 부르는데 제주도와 차이가 없다. 추자도 해녀는 ‘형서리’라고도 하는데 제주도의 ‘홍사리’와 관련이 있다.<sup>34)</sup> ‘조락’은 망사리보다 작고 옆구리에 차거나 목에 걸고 물에 들어가며 해삼을 넣는다고 한다.<sup>35)</sup> 채취용 도구로 해조류를 건져 올릴 때나 문어를 잡을 때 사용하는 갈고리를 제주도 해녀는 ‘갈퀴, 호맹이, 까구리’라고 한다. 서부 자생해녀는 ‘호무, 깔꾸, 까꾸리’라고 하였다. 전복을 따는 도구를 제주 해녀는 ‘빗창, 비창’이라고 하는데 ‘빗’은 제주도 신앙에서는 ‘전복’을 의미하므로 ‘전복을 따는 창(槍)’이라 볼 수 있다. 서부 자생해녀는 ‘피창, 빈창’이라고 하는데 제주 해녀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보조 도구로 해녀들이 수면 위에서 몸을 의지하거나 헤엄칠 수 있도록 만든 것을 ‘테왁’이라고 하는데 서부 자생해녀는 제주 해녀와 달리 ‘두롬박, 둘박’이라고 하였다. 망사리와 닷들을 연결하는 줄을 ‘닷줄’이라고 하는데 소안도 해녀는 제주 해녀와 달리 ‘땃배’라고 하였다.

## 5. 결론

완도군 서부지역 자생해녀의 언어적 특징을 밝히기 위해 해녀들을 심층면담한 후 채록하여 해녀 언어를 문법적, 음운론적, 어휘적으로 분석하였다.

해녀 언어를 문법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조사에서 방언형과 표준어 형태가 공존하는 경우에는 처격 조사 ‘에서’, 도구격 조사 ‘으로’, 보조사 ‘마다’, ‘부터’가

34) 추자도 자료에서만 ‘형서리’라는 어휘가 나타나는데 이는 제주도와 가까워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신안군 해녀도 ‘형서리, 홍서리’라고 말하므로 해산물 채취용 그물은 제주도 해녀의 어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5) 해삼을 다른 해산물과 같이 넣으면 해삼이 상하기 때문에 조락에 넣는다고 한다.

있었다. 처격 조사 '에서'는 세 지역에서 표준어 형태인 '에서'로 실현되는 경향이 높았으며 방언형인 '이서'나 '서'는 장소 명사 '집' 뒤에서 실현되는데 그 비율이 높지 않았다. 도구격 조사 '으로'는 세 지역에서 표준어 형태인 '으로'로 실현되는 경향이 강하였고 방언형인 '이로'로 실현되는 비율은 높지 않았다. 보조사 '마다'는 소안도 해녀는 표준어 형태인 '마다'만을 사용하였으나 추자도 해녀는 두 형태를 다 사용하였는데 방언형 '마당'이 더 우세하였다. 보조사 '부터'는 소안도 해녀는 표준어 형태인 '부터'만을 사용하였지만 추자도 해녀는 두 형태를 다 사용하는데 표준어 형태가 더 우세하였다. 방언형만 나타나는 경우에는 관형격 조사 '의', 처격 조사 '에가', 비교격 조사 '처럼', '만큼'이 있었다. 관형격 조사 '의'는 전남 방언에서 '에, 으, 우'로 실현되는데 소안도 해녀는 '에, 우'를 사용하였고 추자도 해녀는 '우'를 사용하였다. 관형격 조사 '우'는 남을 의미하는 '놈'과 결합할 때 실현되었다. 처격 조사 '에가'는 전남 방언에서 '에가나' '가로' 나타나는데 소안도와 추자도 해녀는 '에가'를 사용하였다. 소안도 해녀는 '가'도 사용하였다. 비교격 조사 '처럼', '만큼'은 추자도 해녀는 '치로'를, 소안도 해녀는 '만치'를 사용하였다.

연결어미에서 방언형과 표준어 형태가 공존하는 경우에는 '-으니까', '-으면'이 있었다. 연결어미 '-으니까'는 보길도와 소안도 해녀는 방언형인 '-으께'가 우세한 반면 추자도 해녀는 표준어 형태인 '으니까'가 더 우세하였다. 연결어미 '-으면'은 전남 방언 '-으면'과 달리 세 지역에서 방언형인 '-으문'으로 실현되었다. 추자도 해녀는 표준형인 '-으면'도 사용하였는데 그 비율은 높지 않았다. 방언형만 나타나는 경우에는 '-으면서', '-으려고', '-지'가 있었다. 연결어미 '-으면서'는 전남 방언과 달리 추자도 해녀는 '-문서'를 사용하였다. 연결어미 '-으려고'는 소안도와 추자도 해녀는 '-을라고'를 사용하였다. 연결어미 '-지'는 세 지역에서 모두 '-제'로 나타났는데 종결어미로도 쓰였다. 세 지역 채록 자료에서 종결어미 '-제'가 더 많이 나타났다.

해녀 언어를 음운론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완도 방언과 다르지 않았다. 모음의 완전순행동화는 2음절 어간의 경우에 보길도 해녀는 '이+어→여'형만 나타났지

만 소안도와 추자도 해녀는 ‘이+어→여’형과 ‘이+어→에’형이 공존하고 있었다. 완도 방언 자료와 비교해 보면 서부 해녀는 ‘이+어→여’형이 더 보편화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w-활음화는 세 지역에서 나타나는데 어간말음절의 모음이 ‘오’인 경우에 활음화가 일어난 경우와 활음화 후에 활음 ‘w’ 탈락한 경우가 공존하고 있다. 어간말음절이 ‘우’인 경우는 두 형태가 공존하겠지만 활음화만 일어나는 형태가 더 일반적이었다. y-활음화는 세 지역에서 나타나는데 보길도 해녀는 활음화 이후에 ‘이+어→여’형만 나타났지만 소안도와 추자도 해녀는 활음화 이후에 ‘이+어→여’형뿐만 아니라 ‘이+어→에’형도 나타났다. 서부 자생해녀는 완도 방언처럼 활음화 이후에 ‘이+어→여’형이 더 일반화될 것 같다.

해녀 언어를 어휘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서부 자생해녀들은 ‘해녀’라고만 불렀고 제주 해녀와 달리 상군은 ‘영자, 머구리’, 하군은 ‘반가’라고 하였다. 바다 환경과 관련하여 보길도는 ‘모래바다’, 소안도는 ‘자갈바다’, 추자도는 ‘뎨섬’에서 물질 작업을 하며 ‘머들’이나 ‘넌지’처럼 제주 해녀의 영향을 받은 어휘들도 사용하였다. 바다 공간과 관련하여 소안도 해녀 자료에는 ‘고래여’, ‘웅통개’가 나타났다. 작업 도구와 관련하여 서부 자생해녀들은 바다에서 채취한 해산물을 담아 넣는 그물을 ‘망아리, 망사리, 명서리, 형서리’라고 불렀는데 제주도 해녀와 다르지 않았다. 채취용 도구를 ‘호무, 깔꾸, 까꾸리’라고 하고 전복을 따는 도구를 ‘피창, 빈창’이라고 하는데 제주 해녀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보조 도구로 해녀들이 수면 위에서 몸을 의지하거나 헤엄칠 때 사용하는 것을 ‘두름박, 들박’이라고 하였는데 제주 해녀와 달랐다. 그리고 소안도 해녀는 망사리와 닷돌을 연결하는 줄을 ‘땃배’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완도군 서부지역 자생해녀의 언어를 문법적, 음운론적, 어휘적으로 분석하였으나 완도군 전체 해녀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지 못하였고 완도군에 정착한 제주해녀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완도군 서부 자생해녀의 언어를 문법적, 음운론적, 어휘적으로 분석한 것은 완도군 해녀 언어 연구의 초석을 다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차후에 완도군 해녀 전체를

대상으로 해녀 언어를 분석하는 동시에 주변 지역 방언과 비교한다면 완도군 해녀 언어의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주제어 : 완도군 서부지역 자생해녀, 완도 방언, 문법적 연구,  
음운론적 연구, 어휘적 연구, 방언형, 표준어 형태

### <참고문헌>

- 고광민(1992), 「平日島 '무레꾼'(海女)들의 組織과 技術」, 『島嶼文化』 10,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97-122면.
- 곽유석(1991), 「청산도의 민속문화-생업도구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9,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25-248면.
- 국립무형유산원(2015), 『서남해 해녀, 통소음악, 한지장』, 국립무형유산원.
- 김경표(2013), 「전남 도서 방언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 김경표(2021), 「전남 신안군 해녀의 언어 연구」, 『한국언어문학』 116, 한국언어문학  
회, 5-31면.
- 문옥희·이아승(2013), 『전남지역 해녀실태조사』, 전남여성플라자.
- 박종오(2015), 「서남해 해녀의 어로방식 변화 고찰」, 『島嶼文化』 46, 목포대 도서문  
화연구원, 119-146면.
- 송기태(2015), 「서남해 무레꾼 전통의 변화와 지속」, 『실천민속학연구』 25, 실천민  
속학회, 207-245면.
- 양원홍(1998), 「완도에 정착한 제주해녀의 생애사」,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 양희주(2015), 「제주해녀 어휘 연구」,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 이기갑(2003), 『국어방언문법』, 태학사.
- 이경아(1997), 「채취기술의 변화에 따른 어촌사회의 적응전략: 신지도 貝類 채취조  
직과 기술을 중심으로」,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한국방언자료집 VI 전라남도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



[Abstract]

## A Study on language of ‘Native Haenye’ in the western regions of Wando-gun

Kim, Gyoung-pyo

This paper analyzed the language of Native Haenyeo in the western regions of Wando-gun in grammatically, phonologically, lexically.

In the Particle, if dialect type and standard language type coexist, there were locative case markers ‘-eseo’, Instrumental Case ‘-eulo’, Auxiliary particle ‘mada’, ‘buteo’. if there is only dialect type, there were Genitive case markers ‘ui’, locative case marker ‘ega’, Comparative case marker ‘cheoleom’, ‘mankeum’.

In the Connective ending, if dialect type and standard language type coexist, there were ‘-eunikka’, ‘-eumyeon’. if there is only dialect type, there were ‘-eumyeonseo’, ‘-eulyeogo’, ‘-ji’.

I have analyzed the language of Haenyeo phonologically, it was not different from the Wando dialect. In the vowel assimilation, in the case of two syllable stems, Bogildo Haenyeo appeared only ‘i+eo→yeo’ type. and Soando and Chuzado Haenyeo were coexisted with the ‘i+eo→e’ type and the ‘i+eo→yeo’ type. Compared to Wando dialect data, it can be estimated that the ‘i+eo→yeo’ type is becoming more common in western Haenyeo. The w-glide formation was found in data from three regions of haenyeo. When the vowel of the stem syllable was ‘오’, the form in which the glide formation occurred and the form in which the glide ‘w’ was eliminated coexisted. and When the vowel of the stem syllable was ‘우’, the two forms will coexist. but the form

in which the glide formation occurred was more common. The y-glide formation appeared in the data of haenyeo in three regions, Bogildo Haenyeo appeared only 'i+eo→yeo' type, and Soando and Chuzado Haenyeo were coexisted with the 'i+eo→e' type and the 'i+eo→yeo' type. Like the Wando dialect, the 'i+eo→yeo' type is likely to be more common after glide formation.

I have analyzed the language of Haenyeo lexically. The western Haenyeo was only called 'Haenyeo' and unlike Jeju Haenyeo, the high-skilled Haenyeo was called 'Yeongja, Meoguli' and the low-skilled Haenyeo was called 'Banga'. Regarding the sea environment, in Bogildo island they work in the sand sea, in Soando island they work in the gravel sea, and in Chujado island they work in the ttenseom island. The vocabulary influenced by Jeju haenyeo was used, such as 'meodeul' or 'neonji'. Regarding the sea space, Soando Haenyeo data showed 'golaeyeo' and 'ungtong-gae'. Regarding working tools, the western haenyeo called the nets that contain seafood collected from the sea 'mang-ali, mangsali, meongseoli, heongseoli', and this is no different from Jeju Haenyeo. The harvesting tool was called 'homu, kkalkku, kkakkuli' and the tool that picks up abalone was called the 'pichang, binchang'. This seems to be influenced by Jeju Haenyeo. As a secondary tool, 'dulumbag, dulbag' are used for Haenyeo to rely or swim on the surface of the sea, this is different from Jeju Haenyeo. Soando Haenyeo called the line connecting the net and the anchor stone 'ttasbae'.

**【Key words】** : Native Haenyeo in the western regions of Wando-gun, Wando dialect, Grammatical study, Phonological study, Lexical study, Dialect type, Standard language type

---

---

**김경표**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강사

(61461) 광주광역시 동구 증심천로 117, 102동 703호

전자우편: haepyoda@naver.com

---

---

이 논문은 2022년 7월 10일에 투고되었으며, 2022년 11월 26일에 심사 완료되어 11월 27일에 게재 확정되었음.